

張保臯의 法華院 건립과 그 기능*

정 순 모**

< 목 차 >

1. 머리말
2. 엔닌이 본 唐代 절의 종류와 규모
3. 法華院의 건립 시기와 위상
4. 法華院의 기능과 무역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9세기 전반 羅·唐·日 3국의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張保臯¹⁾ 登州 文登縣 靑寧鄉 赤山村에 法華院(=法花院)을 건립하였다.²⁾ 開成4년(839) 엔닌은 法華院과 연관된 신라인들의 도움으로 이후 그의 순례와 귀국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엔닌은 法華院에 머무는 동안 장보고의 威望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체류에 도

* 이 논문은 2005년도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忠南大 史學科 講師

- 1) 장보고는 신라의 서남해안 지역 출신으로 810년대 초에 唐으로 건너와 徐州節度使 휘하의 武寧軍에 투신하였고 30세쯤에 군중 소장의 지위에 올랐으나 唐朝의 減軍정책으로 820년대 초에 武寧軍에서 퇴역하였다. 그는 이후 신라로 돌아와 흥덕왕에게 건의하여 828년 청해진을 설치하였고, 이를 근거지로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독점하며 해상왕국의 번영을 누렸다. 장보고에 대한 행적은 권덕영, 『신라 하대 서·남해 海賊과 張保臯의 해상활동』, 『대의문물교류연구』, 2002, 11-16쪽; Edwin O. Reischauer,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55(조성을 옮김, 『중국 중세사회의 여행』, 한울, 1991, 282-288쪽) 등 참조.
- 2)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출판 상황은 참고문헌 참조. 이하 『行記』로 약칭) 卷2, 開成4年(839) 6월/7일 조. 아울러 『入唐求法巡禮行記』의 번역은 김문경 역주,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1999를 참고하였고 쪽수는 일기의 年·月·日을 기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므로 생략하였다. 法華院은 원문에 法花院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法華院이 옳바를 것이다.

움을 준 法華院의 창건자인 장보고에게 존경을 표시하였다.³⁾ 더욱이 그는 당시 신라인의 생생한 활약상과 法華院에 관한 기록을 전해주었고, 우리는 그의 일기를 통해 法華院이 단순한 절이 아닌 주변에 거주하던 신라인들에게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곳이었다고 느낄 수 있다.

현재 法華院에 관한 연구는 다른 연구 주제에 초점을 맞춰 부수적으로 취급된 실정이고 專論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 중 法華院의 건립 동기와 목적 등에 관한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 크게 정신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우선 그 건립이 장보고 선단의 안전한 해상활동을 위해 종교적 귀의처가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신라인 사회의 안녕 등을 위해 건립되었다고 한 것,⁴⁾ 在唐 新羅人の 教化處이자 안전 항해를 위한 祈願處이며 동시에 교민사회 결속의 매개체라고 한 것,⁵⁾ 在唐 신라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강조한 것,⁶⁾ 加護 報恩思想에 따른 것⁷⁾ 등을⁸⁾ 들 수 있다. 이들 견해는 비록 막연하긴 해도 法華院 건립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 동기를 강조한 것으로서 절이 갖는 고유의 기능이나 法華院 주변에 많은 신라인들이 거주했던 사실, 장보고의 무역활동이 항상 海難의 위험을 동반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납득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法華院의 건립에 종교적 동기를 인정한 전제에서 그 현실적 유용성도 일찍부터 지적되었다. 그 중 法華院이 교역 활동에 필요한 숙박시설이었다는 지적은 대표적이다.⁹⁾ 또한 法華院의 건립이 富의 재투자자를 위한 것이었고 講經 의식을 통해 주변의 군소 상인들과 유기적인 관계나 통합을 의도한 것이었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¹⁰⁾ 이들 지적은 당시 장보고의 활발한 무역 활동과 관련하여 法華院 건립에

3) 『行記』 卷2, 開成5년 2/17.

4) 조영록, 「張保臯 船團과 9세기 동아시아의 불교교류」, 『대외문화교류연구』, 2002, 121쪽.

5) 權惠永, 「在唐 新羅人 社會와 赤山 法華院」, 『史學研究』62, 2001, 77-84쪽.

6) 金光洙, 「張保臯의 정치사적 위치」, 『張保臯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1985, 75쪽; 「장보고 세력 흥망의 역사적 의미」, 『장보고와 청해진』, 혜안, 1996, 191쪽.

7) 日野開三郎, 「唐·五代東亞諸國民の海上發展と佛敎」(『佐賀龍谷學會紀要』9·10合併, 11, 1962, 1964),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9, 三一書房, 1984, 213-218쪽.

8) 신복룡은 신라방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나타난 한국(신라) 관계 기록과 몇 가지 문제점」, 『入唐求法巡禮行記(부록)』, 정신세계사, 1991, 319-322쪽).

9) 浦生京子, 「新羅末期の張保臯の擡頭と反亂」, 『朝鮮史研究論文集』16, 1979, 59쪽; 李基東, 「張保臯와 그의 海上王國」, 『張保臯의 新研究』, 1985, 108쪽.

현실적 동기를 찾으려 했던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法華院의 현실적인 기능이 장보고의 해상 무역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었는지 다양하게 검토되지 않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문제는 法華院과 장보고의 무역활동을 검토할 수 있는 직접 사료가 극히 영세하다는 점에 있다. 기존의 연구가 장보고의 무역 활동과 法華院의 밀접한 관계를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단지 신라인들의 활발한 무역활동에 비추어 양자의 깊은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엔닌은 法華院이 奉佛 장소이던 까닭에 무역 활동과 관련된 기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수 있고 이런 점에서 관련 사료의 부족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일지 모른다.

사료적 한계는 분명 法華院의 건립 목적이나 현실적 기능을 파악하는데 큰 장애 요소이다. 다만 기존 연구는 唐代 절의 기본적인 동향과 특징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법화원을 신라인의 입장에서만 접근했던 경향이 강했다. 그 결과 法華院이 唐代 수많은 절의 하나였던 사실을 은연중에 간과해 버린 것은 아닐까 여겨진다. 法華院이 있던 지역은 비록 新羅人 사회를 형성한 治外法權적인 곳이었다고¹¹⁾ 해도 그 곳은 唐朝의 판도에 속한 지역으로 어떤 형식이든 唐朝 정치권력이 미쳤기 때문이다.

安史亂 이후 唐朝의 권위는 크게 약화되어 특히 華北 藩鎮의 半독립적 할거 국면이 전개되었다.¹²⁾ 그렇지만 唐朝의 권위는 번진 절도사들에게 여전히 유효하였고¹³⁾ 각종 조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전히 관철되었다. 河北 3鎮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毀佛의 조치가 집행되었던 것,¹⁴⁾ 唐朝의 행정 시스템이 각 村의 말단까지 어김없이 미치고 있던 점,¹⁵⁾ 法華院에도 당대 절 조직과 동일한 寺主 등이 존재한 것,¹⁶⁾ 엔닌의 公驗 획득 과정¹⁷⁾ 등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특히

10) 조범환, 「張保臯와 赤山 法華院」, 『대의문물고류연구』, 2002, 149-152쪽.

11) E.O. 라이샤워, 앞의 책, 280쪽.

12) 松丸道雄 등, 『中國史』2, 山川出版社, 1996, 448-459쪽.

13) 大澤正昭, 「唐末の藩鎮と中央權力」, 『東洋史研究』32-2, 1973, 8쪽.

14) 『行記』卷4, 會昌5년, 8/16, 9/22, 11/3.

15) 『行記』卷1, 開成4년, 3/22, 등 참조.

16) 『行記』卷2, 開成5년, 1/15.

法華院의 관리인이던 장영이 엔닌의 귀국을 돕고자 배를 건조하던 중 違勅罪에 저촉될까 두려워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¹⁸⁾ 당조의 권력이 赤山의 신라사회까지 관철되었던 상징적인 사례이다. 法華院 소재 지역에 당조의 행정 시스템이 유효하였다면 法華院 역시 唐代 절의 전체적인 동향과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唐代 절의 일반적 동향이나 특징을 기초로 法華院은 언제 건립되었고 唐代 절 중 어떤 위상에 있었으며 장보고의 무역활동과 관련하여 그 현실적 기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2. 엔닌이 본 唐代 절의 종류와 규모

엔닌은 揚州에 도착한 후 북상하여 赤山 法華院에 체류하였고 다시 五臺山 순례를 마치고 장안으로 가는 여정 중 수많은 절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그는 일본 사절단과 동행할 때 주위에서 전해준 주변 절의 실태를 듣고 기록하였으며, 法華院에서 五臺山, 五臺山에서 長安으로 가는 여정에서는 그 스스로 직접 머물고 숙박한 절의 실태와 동향을 단편적이거나 잘 전해주고 있다.¹⁹⁾

엔닌의 기록에 따르면 당대 절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開元寺, 龍興寺와 같은 官寺는 唐朝와 밀착된 관계에 있던 절이었다. 唐朝는 官寺로서 高宗 乾封 원년(666)부터 시작하여 武后 載初 원년(690)에 大雲寺, 中宗 神龍元年(705)과 3년에 中興寺와 龍興寺를 잇달아 건립하였고,²⁰⁾ 開元26년(738)의 勅에 “州마다 각각 城郭 근처에 멋진 경관의 觀·寺를 선정하여 開元으로 (寺)額을 고치게 하라”²¹⁾고 하여 開元寺를 건립하였다. 본래 唐代 國忌日의 행사는 兩京의

17) 김택민, 「在唐新羅人の 활동과 公驗(過所)」, 『대의문물교류연구』, 2002.

18) 『行記』 卷4, 會昌7년 2월, 云3/10.

19) 지면의 제약으로 『行記』에서 언급된 절을 일일이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엔닌은 최소 150개 이상의 절을 직접 보거나 숙박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20) 『舊唐書』 卷5, 「高宗下」, 90쪽; 卷6, 「則天皇后」, 121쪽; 卷7, 「中宗」, 143쪽; 『唐會要』 卷48, 「寺」, 992-993쪽.

大寺 2곳과 전국 81州 절 1곳에서 散齋하게 하였고 중앙 고위 文武 官僚나 州·縣 官도 行香하였다.²²⁾ 그런데 開元27년의 勅에 따라 國忌日 追善法要是 龍興寺, 天子 誕生日인 千秋節 축하의식은 開元寺에서 각각 분담하여 거행되었다.²³⁾ 이들 官寺는 모두 동일한 寺名²⁴⁾과 행정 단위별로 건립되었기 때문에²⁵⁾ 황제의 권위를 선전하는 것은²⁶⁾ 물론이거니와 唐朝 차원의 각종 행사를 주관하기 위한 장소 등으로 활용되었다. 開成3년(838) 일본의 사절단이 開元寺에 머물면서 제반 행정 수속을 밟았던 것처럼²⁷⁾ 官寺는 州縣 단위의 행정 관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협조했던 절이었다.

某寺, 某院으로 호칭되는 곳은 가장 일반적인 절로서 『日記』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통 寺의 규모는 院보다 크긴 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었다.²⁸⁾ 長安에 집중된 절은 皇室의 후원으로 규모도 크고 화려하였으며 그곳 佛堂은 지방의 大寺에 필적하였다.²⁹⁾ 그렇지만 이 경우는 皇室이 거주했던 長安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엔닌이 惠照寺의 禪林院³⁰⁾ 惠海寺의 極樂閣梨院³¹⁾, 大華嚴寺의 庫院·涅槃院·般若院³²⁾ 등으로 언급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院은 대개 寺에 부속된 형태로 존립하였다고 여겨

21) 『唐會要』卷50, 「雜詔」, 1029쪽.

22) 『讞注 唐六典』(上) 卷4, 「尙書禮部」, 454-455쪽.

23) 『唐會要』卷50, 「雜記」, 1030쪽; 『大宋僧史略』卷中, 「生日道場附」, 247쪽下. 또한 두 절은 지방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太平廣記』卷34, 「崔焯」, 216쪽), 武宗의 毀佛 때조차 中書門下는 國忌日에 官吏의 行香 필요상 上州에 절 1곳의 존속을 건의(『舊唐書』卷18上, 「武宗」, 604-5쪽)할 정도였다.

24) 唐朝는 官寺를 새로 건립하거나 기존의 어떤 절을 지정하기도 하였지만, 기존 官寺의 寺名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어떤 官寺가 大雲-中興-龍興-開元의 순서로 改名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淳熙嚴州圖經』卷1, 「寺觀」, 兜率寺, 4295쪽; 『咸淳臨安志』卷76, 「寺觀二」, 大中祥符寺, 4041쪽; 『齊乘』卷4, 「古蹟·亭館上」, 龍興寺, 584쪽).

25) 이는 각지에 官寺 관련 碑文과(『金石萃編』卷64, 「大雲寺碑」; 『全唐文』卷226, 張說, 「唐陳州龍興寺碑」, 2284-5쪽; 卷257, 蘇頌, 「陝州龍興寺碑」, 2598-2600쪽), 『行記』에 龍興寺와 開元寺가 곳곳에 존재하였던 사실에서 쉽게 알 수 있다.

26) 『吳郡志』卷31, 「府郭寺」, 931쪽.

27) 『行記』卷1, 開成3년 7/3, 7/23.

28) 『行記』卷3, 開成5년, 7/26.

29) 『行記』卷4, 會昌4년, 7/15.

30) 『行記』卷1, 開成4년, 윤1/19.

31) 『行記』卷2, 開成5년, 2/20.

32) 『行記』卷2, 開成5년, 5/16.

진다.

엔년이 언급한 절 중에는 佛堂·普通·蘭若와 같은 소규모 절이 많다. 일반적으로 향촌의 佛堂은 한 건물에 불과한 소규모 절이었다. 普通院은 五臺山 순례자들을 위한 숙박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었고³³⁾ 蘭若라고도 호칭되었다.³⁴⁾ 蘭若는 본래 '空靜處', '閑靜處'로 한적한 곳에 수행을 위한 장소로서³⁵⁾ '無院'이라 하였듯이 통상적인 절의 규모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奉佛 장소였다.³⁶⁾ 胡三省은 "私造者招提蘭若"라고³⁷⁾ 하여 招提와 蘭若를 十方寺院이 아닌 곳으로 해석하였지만, 9세기 招提·蘭若는 엔년의 언급대로³⁸⁾ 대중에게 개방된 곳이 많았다.

소규모 절은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춘 절로 발전할 여지가 컸던 까닭에 開元 연간 이래 唐朝 절 대책의 중점도 소규모 절의 濫設을 억제하는데 있었다.³⁹⁾ 唐代 소규모 절에 대한 대책은 唐朝가 그 기준을 정하려고 했던 노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德宗시기 東川節度使 이숙명은 관할 지역의 절을 3등급으로 나누고 각각 21-14-7인을 기준으로 하였다.⁴⁰⁾ 그의 제안은 비록 수용되지 않았지만 德宗이 내심 이를 '天下法'으로 간주하려 했던 점에서 볼 때 당시 지방 절의 규모를 엿볼 수 있다. 會昌5년 7월 勅에도⁴¹⁾ 節度觀察使 治所 등지의 절을 각각 20-10-5인 3등급으로 나누었다. 大中 연간 復佛시기, 중요한 지역의 절에 허락한 度僧도 50인, 30인 정도였다.⁴²⁾ 결국 소규모 절이 唐朝 절 대책의 주요 표적이었다면 5-7인 정도의 절이 상당수였을 것이다. 엔년이 五臺山으로 가던 중 불과 1-2명 승려만 있던 절이 많았던 사실은⁴³⁾ 당시 향촌 곳곳에 소규모 절의 만연을 확인시켜 준다.

33) 道端良秀, 『唐代佛敎史の研究』, 法藏館, 1957, 421-426쪽.

34) 『行記』 卷2, 開成5년 4/28.

35) 『釋氏要覽』 卷上, 「住處」, 263쪽.

36) 『大宋僧史略』 卷上, 「創造伽藍」, 2127쪽.

37) 『資治通鑑』 卷248, 「唐紀64」, 8017쪽.

38) 『行記』 卷2, 開成5년, 4/23.

39) 鄭亨模, 「唐後期 造寺와 家寺」, 『魏晉隋唐史研究』4, 1998, 216-219쪽.

40) 『新唐書』 卷147, 「李叔明傳」, 4758쪽.

41) 『資治通鑑』 卷248, 「唐紀64」, 8016쪽.

42) 『全唐文』 卷82, 宣宗, 「受尊號敕文」, 862쪽.

43) 『行記』 卷2, 開成5년, 3/15, 4/17, 4/21, 4/23, 등.

開元15년(727) 唐朝는 “天下 村坊의 佛堂중 규모가 작은 것은 모두 부수어 없애라”는⁴⁴⁾ 勅을 반포하여 당시 향촌에 급속히 증가하던 소규모 절을⁴⁵⁾ 대대적으로 단속하였고, 祠部는 전국의 절을 총 5,358所로 파악하였다.⁴⁶⁾ 祠部에 등록된⁴⁷⁾ 절 5,358所는 당조가 寺額의 하사를 통해 정식으로 존립을 인정했던 절이었고 그 수치는 당시 절의 ‘定數’⁴⁸⁾였다. 그러나 安史亂 이후 唐朝의 통제력이 이완되면서 소규모 절은 지속적으로 남설되었고, 文宗 大和 원년(827) 舒元興은 “十族之鄉, 百家之間에 반드시 浮圖가 있고 외래 종교의 절을 다 합해도 한 小邑에 있던 釋寺의 數에 미치지 못한다”⁴⁹⁾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大和4年(830) 祠部는 “天下 州府의 村坊에 있는 佛堂·普通·私色蘭若·義井 등을 모두 해당 州府의 절에 예속시켜 관할하게 하십시오”⁵⁰⁾라는 奏文을 올렸고 大和9年(835) 7월 勅에서⁵¹⁾ 다시 반복된 칙문을 반포할 정도였다. 이러한 소규모 절에 대한 단속은 武宗의 會昌 毀佛시에 철저히 시행되었다. 會昌4年(844) 7월 친하의 山房蘭若·普通·佛堂·義井·根邑齋堂 등 이른바 小佛堂중 200間 이하, 無額寺院에 대한 철퇴를 먼저 단행하였고⁵²⁾ 10월 城中 33處의 소규모 절을 병합한 것도⁵³⁾ 5년의 毀佛 직전에 시행된 소규모 절의 정리였다. 毀佛의 결과 寺院 4,600所, 招提·蘭若 4萬餘所가⁵⁴⁾ 철퇴되었고 그 중 4만여 蘭若는 그 때까지 각종 禁令에도 불구하고 향촌에 광범위하게 남설되고 있었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會昌 毀佛 이전까지 당시 사회에 소규모 절의 남설을 배경으로 장보고의 法華院도 큰 제약 없이 건립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44) 『佛祖統紀』卷40, 1673쪽; 『太平廣記』卷104, 「李虛」, 703쪽.

45) 『唐會要』卷49, 「像」, 1003쪽; 『全唐文』卷353, 房翰, 「大唐揚州大都督府六合縣台山祇桓寺碑」, 3575쪽.

46) 『譯注 唐六典』(上)卷4, 「尚書禮部」, 449쪽.

47) 北魏시기 ‘定帳’과 五代 後周시기 ‘帳籍’의 존재를(『魏書』卷114, 「釋老志」, 3047쪽; 『舊五代史』卷115, 「世宗紀」, 1531쪽) 통해, 절은 관할 官署에 등록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48) 『舊唐書』卷43, 「職官2」, 1831쪽.

49) 『全唐文』卷727, 舒元興, 「唐鄂州永興縣重巖寺碑銘」, 7498쪽.

50) 『全唐文』卷966, 「請申禁僧尼奏」, 10032-3쪽.

51) 『唐大詔令集』卷113, 政事·道釋, 「條流僧尼勅」, 542쪽; 『全唐文』卷74, 「條流僧尼勅」, 777-8쪽.

52) 『行記』卷4, 會昌4년 7/15; 『資治通鑑』卷248, 「唐紀64」, 8015쪽.

53) 『全唐文』卷78, 武宗, 「加尊號後郊天敕文」, 819쪽.

54) 『資治通鑑』卷248, 「唐紀64」, 8015-7쪽.

3. 法華院의 건립시기와 위상

唐朝가 소규모 절의 남설을 적극 억제하려 했던 것은 규모가 큰 절로 발전할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法華院은 9세기 초반에 건립되었다. 현재 法華院의 정확한 건립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대략 820년대 초 혹은 그 전후,⁵⁵⁾ 824년-825년 무렵,⁵⁶⁾ 창해진 설치(828년 4월) 이전,⁵⁷⁾ 창해진 설치를 전후한 시점⁵⁸⁾, 창해진 설치 이후⁵⁹⁾ 등 매우 다양한 건립 시기가 제시된 실정이다.

그 중 820년대 초 혹은 그 전후 설의 근거는 엔닌이 開成4년(839) 眞莊村 天門院에서 法空 스님을 만났는데 법공은 일본에서 돌아 온지 20년이 되었다고⁶⁰⁾ 한 전언에 있다. 법공의 전언은 法華院이 820년 무렵에 건립되었던 사실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설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점이 있다. 장보고가 武寧軍 小將에서 물러난 시점은 長慶元年(821)이었고⁶¹⁾ 그가 갓 퇴역한 시점에서 과연 法華院을 건립할 능력이나 혹은 재력을 갖출 수 있었는가 회의적이다. 당후 반기 節度使 휘하의 武將들이 절을 건립하거나 자신의 토지를 기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⁶²⁾ 대부분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 지역 내에 한정되었다. 武寧軍과 登州가 지리적으로 상당한 거리에 있었던 점에서 볼 때 장보고가 武寧軍

55)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4, 鈴木學術研財團, 1969, 243-244쪽; 김문경, 「張保皇와 法華三寺」, 『入唐求法巡禮行記를 통해 본 新羅인들의 활동』, 해양수산부, 2000, 168쪽; 「해상활동」, 『한국사-통일신라』9, 국사편찬위원회, 1998, 329쪽, 등.

56) 조범환, 앞의 논문, 2002, 146-149쪽.

57) 李永澤, 「張保皇海上勢力에 관한 考察」, 『韓國海洋大學論文集』14, 1979, 76쪽; 李基東, 「張保皇와 그의 海上王國」, 『張保皇의 新研究』, 1985, 107-108쪽.

58) 權惠永, 앞의 논문, 2001, 71쪽.

59) 이종훈, 「중국 산둥반도에서의 장보고와 신라인들」, 『장보고 해양경영사 연구』, 이진출판사, 1993, 140-141쪽.

60) 『行記』卷2, 開成4년, 7/14.

61) 蒲生京子, 「新羅末期の張保皇の擡頭と反亂」, 『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1979, 49-50쪽.

62) 周藤吉之, 「唐末五代の莊園制」, 『中國土地制度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54, 18-23쪽.

小將시기에 法華院을 건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李師道가 元和13년(818)까지 兗州 일대를 관할하였고⁶³⁾ 武寧軍과 적대관계였던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法華院의 건립을 820년 무렵으로 파악한 견해는 무엇보다 장보고의 상황과 사료적 괴리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825년 무렵에 法華院을 건립하였다고 한 견해는 會昌5년(845) '張大使가 天長 원년(824) 일본에서 돌아오면서 신라인 還俗僧 李信惠도 함께 돌아왔다고 한 기사에서⁶⁴⁾ 추론한 것이다. 여기서 '張大使'는 장보고를 지칭하고 그가 이 무렵 활발한 무역활동을 하였으므로 이신혜를 法華院에 두기 위해, 혹은 法華院을 건립하기 위해 일본에서 데려왔다고 보았고 法華院 건립은 자연히 825년 무렵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이 기사만으로 장보고가 본격적인 무역 활동을 하였다고 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張大使'가 장보고인지 아니면 張詠인지도⁶⁵⁾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법공의 전언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法華院의 건립을 828년 전후로 본 견해는 대체로 당시 장보고의 활발한 무역 활동과 관련하여 추정한 것이다. 장보고가 淸海鎮을 설치할 정도라면 이미 상당한 세력을 가진 것이 확실하고 法華院 건립에 소요되는 재력 조달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828년 무렵에 法華院이 건립되었던 것만은 확실히 인정해도 좋을 듯 싶다. 다만 이 견해는 法空의 전언이나 이신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해야 할 것이다.

法華院의 건립 시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단편적 사료나 장보고의 상황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지만 현재 어느 설이 옳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法華院의 정확한 건립 연대를 알려주는 사료가 없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기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한결같이 法華院이 '일시에' 건립된 것을 상정하여 그 건립 시기를 추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세기 중엽 이래 소규모 절이 남설되었던 상황에 천착할 때, 法華院은 일시에 건립되었다기 보다 초기 단순한 奉佛 장소에서 조금씩 확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는 法華院의 명칭이 매우

63) 『資治通鑑』 卷241. 『唐紀57』, 7765쪽.

64) 『行記』 卷4. 會昌5년, 9/22.

65) 李永澤, 앞의 논문, 1979, 75쪽; 權惠永, 앞의 논문, 2001, 68-69쪽.

다양하게 불려진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엔닌은 그의 일기에 法華院을 山院·赤山·赤山新羅寺院·赤山院·赤山新羅院·赤山寺 등과 혼용하여 기록하였다.⁶⁶⁾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언급된 것이었기에 엔닌도 그때마다 다른 寺名으로 기록하였던 것이다. 法華院의 다양한 호칭은 法華院의 단계적 발전 과정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엔닌이 본 法華院은 분명 어느 시점에 장보고와 같은 유력 檀越을 만난 이후의 것이지만 法華院은 단순 奉佛 장소로서 그 이전에도 존립하여 다양한 이름으로 호칭되었던 것이다. 法華院이 단계적으로 발전한 것을 인정한다면 기존 연구의 사료적 모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엔닌이 보았던 法華院은 구체적으로 언제 확대 재편되었는가 라는 점인데 현재로서는 장보고가 淸海鎮을 설치한 이후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法華院의 규모는 후술할 주변 지역의 절에 비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고 淸州 관부와 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즉 단순히 재력만으로 건립될 수 있는 절은 결코 아니다. 章敬寺에 유학했던 신라승인 법청을⁶⁷⁾ 초빙하여 法華院의 주지로 임명할 수 있을 정도의 '威勢'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결국 엔닌이 본 法華院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이후 정치력과 군사력을 겸비하고 해상 무역을 독점하기 시작한 828년 직후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法華院은 『法華經』 講經과 관련하여 명명된 것이지만 전술한대로 다양하게 호칭되었다. 寺名의 혼용은 일상생활 중 흔한 일로 넘길 수 있어도 공식 문서상 일관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 이는 法華院이 唐朝의 정식 절로 공인되지 않았던 사실을 반영한다. 法華院은 會昌毀佛의 와중에 철폐되었고, 그 구체적인 시점은 武宗의 會昌5년(845) 대대적인 寺院撤廢令에 의한 것이 아니라 會昌4년(844) 唐朝에서 공인하지 않은 200간 이하의 절과 佛堂 등을 철폐하라는 조칙에 의거하였다.⁶⁸⁾ 그 칙령의 내용은 바로 '無額寺院' 즉 공인되지 않은 절의 철폐에 초점이 있었다.

66) 『行記』 卷2. 開成4년 7/14, 7/15, 7/28, 11/2, 開成5년 1/15, 2/19, 3/5; 卷3, 開成5년, 10/17 등.

67) 『行記』 卷2, 開成4년, 9/12.

68) 『行記』 卷4, 會昌4년 7/15; 권덕영, 앞의 논문, 2001, 73-75쪽.

이를 통해 法華院은 祠部에 등록되지 않았던 無額寺院이었고 唐朝의 절 대책의 예외적 존재는 결코 아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法華院이 毀佛 직전까지 赤山村에 의연히 존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많은 절들이 會昌毀佛 이전 정식 절로 공인받지 못했어도 다양한 이유로 존립하고 있었다. 法華院의 경우 후술할 唐朝의 對新羅 교섭 창구, 혹은 장보고의 무역 활동과 관련된 현실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唐朝 혹은 관할 藩鎮의 목인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法華院은 院이고 寺라고 하지 않았다. 왜 法華寺라 명명하지 않았으며 法華院을 新羅院이라고도 하였을까? 엔닌이 본 唐代 절의 종류는 官寺와 寺·院, 蘭若·普通 등 매우 다양하였고 소규모 절인 경우 특수한 목적과 기능이 있었다. 물론 寺와 院을 엄밀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院은 寺 내에 부속된 建物群을 의미하였다.⁶⁹⁾ 절의 규모가 클 때 내부에 수많은 院이 있고 각 院은 전문적인 직무나 종파(戒律, 念誦, 譯經, 禪定 등)에 따라 건립되었다.⁷⁰⁾

예를 들어 『行記』 내에서도 普通院·常住院·招提院·天王院·南院·閻梨院·天門院·淨土院·繡經院 등의 존재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院은 모두 寺에 부속된 형태로서 특별한 목적과 기능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당대 절 중 法華院은 『法華經』과 특별히 관련되었던 곳으로 대체로 寺에 부속되어 있었다. 開元寺의 法華院⁷¹⁾, 蘇州 重玄寺의 法華院⁷²⁾, 潭州 安國寺의 法華院⁷³⁾ 등⁷⁴⁾이 한결같이 寺의 子院으로 기재되어 있다. 엔닌이 언급한 揚州의 龍興寺, 大曆法華寺에도 法華院이 부속되어 있었다.⁷⁵⁾ 따라서 장보고의 입장에서 法華院은 淸海鎮 法華寺의 子院으로 상정한 것일지도 모른다.

69) Jacques Gernet, translated by Franciscus Verellen, *Buddhism in Chinese Socie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34쪽.

70) Jacques Gernet, 앞의 책, 1995, 43쪽.

71) 『寶慶四明志』卷11, 寺院, 開元寺 條, 5131-5132쪽.

72) 『白居易集』卷69, 『蘇州重玄寺法華院石壁經碑文』, 1448-1449쪽.

73) 『文苑英華』卷817, 記, 于頔, 『潭州法華院記』, 4316-4317쪽.

74) 『寶刻叢編』卷6, 河北東路, 北京, 『唐開元寺新修法華院記』, 18165쪽; 卷19, 『福州唐聖泉寺法華院記』, 18361쪽.

75) 『行記』卷1, 開成3년 12/9, 開成4년 1/3; 卷3, 開成5년 7/4.

法華院은 비록 無額寺院이었으나 院이었지만 그 규모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 외면적인 규모는 엔닌의 일기에 세밀히 묘사되어 있다.⁷⁶⁾ 法華院 경내에는 840년 전후 法堂(佛堂), 講堂, 소속 僧尼들이 거처한 몇 개의 僧房, 엔닌이 머물던 閑房 혹은 客房이 있었고 아울러 藏經閣으로 보이는 經藏, 식당, 창고 등의 부속건물이 있었다. 또한 講經을 울리던 鍾이 있었던 사실에서 鐘樓도 있었을 것이다. 그 중 法堂(佛堂)과 講堂이 개별 건물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아도 그 강당은 講經法會에서 신라인 250명이 참여하였던 사실로⁷⁷⁾ 보아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다.

法華院에 거주한 승니 등은 常住僧衆 15명, 沙彌9명, 尼은 3인, 老婆2인 합계 29인이었다.⁷⁸⁾ 이 인원수는 비록 長安 소재의 절이나 國淸寺와⁷⁹⁾ 같은 大寺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숙명의 절 기준에서 볼 때 지방의 절로서 결코 작지 않은 규모였다. 참고로 9-10세기 敦煌 지역의 절을 보면 龍興寺 僧40·沙彌20, 開元寺 僧24·사미14, 乾元寺 僧26·사미16, 永安寺 僧24·사미14, 金光明寺 僧39·사미23 등이었다.⁸⁰⁾ 이 절들이 그곳의 핵심 절로 거론된 곳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法華院은 비록 이에 미치지 못해도 院으로서 독립된 절이었고 다른 지방 소재의 절과 비교해도 오히려 큰 편에 속한다. 엔닌이 목도한 澄州 등지의 절이 퇴락하고 있던 상황까지⁸¹⁾ 감안하면 山東 지역의 절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唐代 절의 실태를 기초로 法華院의 위상을 보면 法華院은 정식 절이 아닌 無額寺院이었지만 그 규모는 결코 작지 않았다. 더욱이 주변 지역의 절과 비교하여 나름대로 절의 기능이 잘 유지된 곳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法華院 기능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76) 권덕영, 앞의 논문, 2001, 71-73쪽.

77) 『行記』 卷2, 開成5년, 1/15.

78) 『行記』 卷2, 開成5년, 1/15.

79) 『行記』 卷1, 開成4년, 윤1/19.

80) Jacques Gernet, 앞의 책, 1995, 9쪽.

81) 『行記』 卷2, 開成5년, 2/27-4/21, 참조.

4. 法華院의 기능과 무역활동

엔닌은 開成5년 2월19일 五臺山 순례를 위해 法華院을 출발하였다. 그는 嶺州·萊州 등지를 경유하여 鎭州 上房普通院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절의 퇴락을 전해주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화려했던 절에 상주하던 승려가 매우 적었고, 심지어 寺名조차 모르거나 승려가 俗家에 머물었다고 하였다.⁸²⁾ 특히 醴泉寺는 15개의 寺莊과 100여 명의 승려가 있었지만 현재 30여 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⁸³⁾ 아마도 이 지역에서 빈발했던 전란이 그 곳 절의 퇴락을 초래했을 것이다. 반면 法華院은 매우 활기찬 절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신라 무역 상인들의 지속적인 왕래와 무관할 리 없다.

法華院에 관한 핵심적 기록은 『行記』에 묘사된 다음의 내용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법화원의 기능과 무역 활동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후 2-4시 무렵에 赤山의 동쪽 해변에 배를 정박하였다. 복서풍이 몹시 분다. 적산은 순전히 암석으로 치솟았다. 이곳은 文登縣 淸寧鄉 赤山村이다. 산에 절이 있으니 그 이름을 赤山 法華院이라 한다. 이곳은 장보고가 처음 세운 절이다. 오래 동안 소유해 온 莊田으로 식량을 충당해 왔으며, 장전에서 1년 동안 얻는 식량은 500석이다. 겨울과 여름에 강회가 있다. 겨울에는 『法華經』을 8권, 여름에는 10권 『金剛明經』을 오래 동안 강론하였다. 남북으로 바위 봉우리가 있으며, 샘물이 절 마당을 가로질러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동쪽으로 바다가 보이고 남·서·북쪽은 봉우리가 이어져 벽을 이루고 단지 서남쪽은 경사져 있다. 지금은 新羅通事 押衙인 張詠, 林大使, 王訓 등이 도맡아 관리하고 있다.⁸⁴⁾

우선 법화원은 바다와 연접해 있어 무역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실제로 法華院은 적산촌 항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거처로서 잘 활

82) 『行記』 卷2. 開成5년. 3/1. 3/19.

83) 『行記』 卷2. 開成5년. 4/6. 4/7.

84) 『行記』 卷2. 開成4년 6/7.

용되고 있었다.⁸⁵⁾ 法華院이 속한 唐代 河南道는 唐初부터 新羅와 日本의 朝貢 사절이 상륙하던 곳이었으며,⁸⁶⁾ 특히 登州는 9세기초 신라인 노비매매 등과 같은 교역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상황에서⁸⁷⁾ 신라·발해·唐·일본의 왕래를 위한 중요한 요지였다.⁸⁸⁾ 登州城 남쪽에 있던 新羅館과 渤海館은⁸⁹⁾ 바로 唐과 신라·발해의 빈번한 교섭으로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法華院 근처 바다에는 암초가 많아⁹⁰⁾ 오직 赤山浦로 접근할 수 있을 뿐이었다. 엔닌은 海州에서 登州로 오는 여정 중 해안 지대에 인적이 드물었고⁹¹⁾ 赤山에서 登州에 이르는 행로도 인가가 드문 山野였다고 하였다.⁹²⁾ 그렇다면 法華院 주변은 신라에서 도착한 배나 이곳에서 출항하는 배를 위한 편의 시설은 미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法華院은 주변의 향촌사회를 대상으로 한 종교적 기능과 별개로, 해상 무역을 위해 편의 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절이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다. 또한 일기에 묘사된 法華院 주위는 마치 군사적 요새를 방불케 하여 무역활동과 물품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매우 유리한 위치인 것처럼 느껴진다. 法華院은 그 입지 조건상 장보고의 무역 활동에 일종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法華院에서는 무역 상인을 위한 公驗(過所) 발급을 대행하는 행정 업무도 이루어졌다. 보통 唐에 입경한 승려와 상인 등은 반드시 公驗을 신청하고 얻어야 내지 이동을 할 수 있었고⁹³⁾ 公驗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인이 필요하였다. 엔닌이 법화원의 협조를 얻어 공험을 취득한 과정은 대표적 사례이고⁹⁴⁾ 西域 지역에서 출토된 한 文書는⁹⁵⁾ 상인의 공험 신청을 위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85) 『行記』 卷2, 開成4년 6/27, 6/28, 등.

86) 『譯註 唐六典』(上) 卷3, 「尙書戶部」, 280쪽.

87) 권덕영, 앞의 논문, 2002, 16-20쪽.

88) 『元和郡縣圖志』 卷11, 「河南道7」, 登州, 311쪽; 『新唐書』 卷43下, 「地理7下」, 1147쪽.

89) 『行記』 卷2, 開成5년, 3/2.

90) 『行記』 卷2, 開成4년, 6/3.

91) 『行記』 卷4, 會昌5년, 8/16.

92) 『行記』 卷2, 開成5년 3/2.

93) 程喜森, 『唐代過所研究』, 中華書局, 2000, 105-111쪽.

94) 김택민, 앞의 논문, 2002, 197-202쪽.

95) 『吐魯番出土文書』 第7冊, 「唐垂拱元年康義羅施等請過所案卷」, 文物出版社, 1986, 88-91쪽.

法華院은 갓 입경한 상인이나 승려들을 위해 보증인이 되어 州縣에 公驗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⁹⁶⁾ 공험을 획득할 때까지 제반 편의를 제공해 주어 당시 羅唐 무역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法華院은 당조의 對신라 창구로도 적극 이용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신라나 장보고의 입장에서 法華院을 파악하여 唐朝가 法華院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法華院이 정식 절도 아니면서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唐朝 혹은 이 지역 藩鎮들도 法華院을 對신라 교섭의 창구로서 그 활용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法華院은 羅唐간의 외교사절이 머물던 곳이었다. 開成 4년(839) 청주병마사 조자진이 신무왕의 즉위를 경축하는 사신으로서 관리 30여 명과 함께 法華院을 방문하고⁹⁷⁾ 신라로 출발하였다. 法華院의 주지인 법정이 당조의 度牒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점,⁹⁸⁾ 장영이 어느 정도 唐朝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인 점⁹⁹⁾ 등은 法華院이 장보고의 입장을 구현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당조의 권력이 미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장보고가 法華院을 자신의 무역거점으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唐朝 역시 이곳을 신라와의 교류 장소, 혹은 唐朝의 입장을 관철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던 점을 지적하고 싶다.

法華院의 莊園에서 생산되는 연간 500石米도 자체 소비 이외에 무역 선단을 위한 程糧에 이용되었다. 法華院의 장원 규모는 현재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法華院의 승려들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米를粟으로 환산하면 粟 1,000石이다. 당시 화북지역의 평균 생산량은 1畝당 1석이므로 그 토지 규모는 약 10頃 정도일 터이다. 만약 500石米(1천 석의 粟)가 租入에 의해 획득된 것이라면 租 1/10일 경우에는 100頃, 1/2 소작일 경우라면 20頃 등 다양한 규모의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다. 당시 丁男의 1년 粟 소비량은 12石, 丁妻는 9石, 中小와 老小는 5.4石, 小男은 3.6石이었다.¹⁰⁰⁾ 法華院에 거주한 승니 등은

96) 『行記』 卷2, 開成4년 9/12.

97) 『行記』 卷2, 開成4년(839) 6/28.

98) 『行記』 卷2, 開成4년 9/12.

99) 『行記』 卷2, 開成5년 2/19. 이는 장영이 唐朝의 勾當新羅使押衙 직책을 맡고 있는 사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100) 『吐魯番出土文書』 第6冊, 『唐蘇海顯等家口給糧三月帳』, 文物出版社, 1985, 18-21쪽; 김성한, 『중국토지제도사연구』, 신서원, 1998, 72-73쪽.

常住僧衆 15명, 沙彌 9명, 尼 3인, 老婆2인 합계 29인이므로 이들의 1년 식량 소비량을 丁男으로 계산해도 粟348石에 불과하고 잉여물이 무려 粟 652石, 즉 米 326석이나 된다. 그렇다면 이 많은 곡물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주변 신라인들을 위해 대여할 수도 있고 다양한 활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장보고의 무역 활동과 관련해 볼 때 선단에 공급하는 식량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엔닌의 사절단이 풍랑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다시 적산촌 부근에 정박하였을 때의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당시 각국의 사절단은 당조로부터 귀국을 위한 程糧을 경유지마다 공급받았고¹⁰¹⁾ 엔닌의 사절단도 그 규정에 따라 정량을 지급받았다.¹⁰²⁾ 그러나 일본의 사절단이 풍랑으로 부득이 登州에 정박했던 상황에서 登州 관아는 칙서에 지급 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정량 공급을 거부하였다. 일본 사절단은 어쩔 수 없이 程糧을 法華院 관리인 중 한 명인 王訓에게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 후 法華院에서 70석의 미를 운반하여 정량으로 충당하였다.¹⁰³⁾ 장보고를 수장으로 한 무역활동은 기본적으로 私貿易이었으므로 항해 중에 필요한 程糧은 당연히 사적으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法華院의 장원은 바로 장보고의 무역 선단을 위해 항해에 필요한 식량을 제공해 주는 용도로서 이용될 수 있었고 法華院이 적산의 항구와 가까워 운반에도 매우 편리하였을 것이다.

法華院의 운영은 新羅通事 押衙인 張詠과 林大使, 王訓 등이 전적으로 맡아 관리하고 있었다. 唐代 승려들이 현실적 업무를 담당한 것은 매우 일반적 현상으로 法華院에 소속된 장원도 승려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¹⁰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法華院의 운영이 굳이 俗人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사실은 法華院이 종교적 기능 외에 중요한 현실적 기능이 수행되고 있었던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8세기 초부터 寺·俗간의 밀접한 교류 내지 결탁이 만연되어 있던 당대 절 동향과도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기도 하다. 景雲2年(711) 7月 辛替否가 절 내에 속인의 거주를 지적한¹⁰⁵⁾ 이후, 開元10年(722) 2月의 詔令에서는 僧尼와 私門이 서로 掩匿하

101) 『新唐書』 卷46, 「百官1」, 1196쪽.

102) 『行記』 卷1, 開成4년, 3/22: 卷2, 4/26.

103) 『行記』 卷2, 開成4년, 5/1, 7/16.

104) 권덕영, 앞의 논문, 2001, 65쪽.

면서 奸詐한 행위를 한다고 하여 엄금시켰고¹⁰⁶⁾ 開元19년(731)에도 僧尼가 속인들과 긴밀히 往來하면서 멋대로 俗家에 머문 사실을 지적하고 禁斷토록 하였다.¹⁰⁷⁾ 唐朝가 寺·俗 결탁에 적극 대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해는 法華院이 존속한 9세기에든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것이다.¹⁰⁸⁾ 이런 점에서 法華院에서 속인들이 존재하고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실은 특별한 것이라기보다 당시 절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9년의 일기에서 보이는 唐代 절의 동향과 특징을 중심으로 法華院은 언제 건립되었고 唐代 절 중 어떤 위상에 있었으며, 장보고의 무역활동과 관련하여 그 현실적 기능은 무엇이었는지 다양하게 검토하였다.

당대 절은 크게 官寺, 寺와 院으로 호칭된 곳, 普通·蘭若 등과 같은 소규모 절, 3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 중 소규모 절이 唐朝 절 대책의 주요 대상으로서 開元 연간 이래 당조는 그 濫設을 억제하려 하였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장보고의 法華院 역시 이러한 동향을 배경으로 건립될 수 있었다. 法華院이 다양한 이름으로 호칭되었던 것은 法華院의 단계적 발전에서 비롯된 현상이었다. 法華院은 비록 당조의 승인을 받지 못한 無額寺院이었지만 주변 지역의 절과 비교할 때 그 규모는 결코 작지 않았고 매우 활기찬 절이었다. 그곳이 唐의 對新라 교섭중계지로 활용되었고 무역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法華院은 해안에 위치하여 무역활동에 유리하였다. 오히려 그 입지 조건

105) 『舊唐書』卷101, 「辛替否傳」, 3157-8쪽; 『文苑英華』卷698, 疏, 「諫中宗置公主官疏」, 3604쪽; 『唐會要』卷48, 「寺」, 997쪽.

106) 『冊府元龜』卷159, 「帝王部·革弊1」, 1924쪽.

107) 『冊府元龜』卷159, 「帝王部·革弊1」, 1925쪽; 『唐會要』卷49, 「雜錄」, 1008쪽.

108) 줄고, 앞의 논문, 1998, 220-222쪽.

때문에 법화원이 건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법화원은 唐에 入·出境하는 사신·상인·승려 등을 위해 숙박시설로 활용되었고 공험 등을 취득하는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더욱이 절에 부속된 莊園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장보고의 貿易 船團에 程糧으로 공급되었다. 법화원의 운영이 속인들에 의해 담당되었던 것은 이상의 기능과 밀접히 관련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法華院은 장보고의 무역 활동에 현실적으로 크게 유용했던 對唐 무역의 전진 기지라고 규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울러 다른 지역의 新羅院의 존재에서 느낄 수 있듯이, 法華院은 唐의 절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거점으로도 파악할 여지가 있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參考文獻>

- 『入唐求法巡禮行記』, 佛書刊行會, 1915.
 김문경 역주 『엔년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1999.
 正史: 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魏書』 『舊唐書』 『新唐書』 『舊五代史』
 『白居易集』, 中華書局, 1988.
 『元和郡縣圖志』, 中華書局, 1995.
 『唐六典』, 中華書局, 1992.
 김택민 주편 『譯註 唐六典』(上), 신서원, 2003.
 『資治通鑑』, 中華書局, 1987.
 『佛祖統紀』,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992.
 『唐大詔令集』, 學林出版社, 1992.
 『唐會要』, 上海古籍出版社, 1991.
 『五代會要』, 上海古籍出版社, 1978.
 『冊府元龜』, 中華書局, 1986.
 『文苑英華』, 中華書局, 1990.
 『太平廣記』, 中華書局, 1986.

- 『全唐文』, 中華書局, 1982.
『金石萃編』, 陝西人民出版社, 1990
『大正新修大藏經』(史傳部), 大正一切經刊行會, 1924:
『釋氏要覽』 『大宋僧史略』
『唐大詔令集』, 學林出版社, 1992.
『吐魯番出土文書』 第6・7冊, 文物出版社, 1985・1986.
『寶刻叢編』(『石刻史料新編』, 新文豐出版公司, 1977)
『宋元方志叢刊』, 中華書局, 1990.
『淳熙嚴州圖經』 『咸淳臨安志』 『齊乘』 『吳郡志』 『寶慶四明志』

* 이하 논저는 注 참조.

<Abstract>

According to Ennin's Diary, Chang Pogo(張保阜) had played an active part in overseas trade and founded a Buddhist cloister, which is called Fahuayuan(法華院) in Dengzhou(登州) about 828. On the basis of the trend of Buddhist monasteries in Tang(唐) China, I tried to examine the practical roles of the Fahuayuan with overseas trade.

The Fahuayuan had many unofficial names, the cloister was clearly not approved from the Tang regime. On the other hand, it was located near sea and very useful to the official trade and diplomacy between the Silla(新羅) and the Tang regime. Because of that, the existence of the cloister could be gotten tacit approval from the Tang regime, and Chang Pogo used it as a strong business foothold in China.

The Fahuayuan had performed several practical roles for Chang Pogo's overseas trade. It was a good hotel for foreign traders and diplomatic officials, and had a role administrative affairs for foreign trader and monk to entry into China. Moreover, this cloister had many estates itself, and could provide trading ships with food. Accordingly, the management of the cloister got be achieved by common persons.

I think the Fahuayuan was a energetic cloister while Chang Pogo had active overseas trade. However, the cloister was abo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HuiChang(會昌) Persecution in 844.

This means that it was not seceded from the authority of the Tang regime.

Key Words: Chang Pogo, Fahuayuan, Jeol, Buddhist monastery, Buddhist cloister.
Overseas trade